

봄철 안전운전

이 풍 로

(교통안전공단 교수·박사)

1. 봄철 교통사고의 특징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사람, 도로, 차량 등 교통의 3요소가 기지개를 활짝 펴고 빠르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통환경이 복잡해진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봄철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비해 사고비율이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봄철 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봄철 특유의 춘곤증 현상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많다.

둘째, 해빙기로 인한 사고가 많다.

셋째, 밤과 낮의 기온차로 인한 안개길 사고가 많다.

넷째, 봄철이 되면 중국 황하유역 바람이 한반도로 넘어와 생기는 황사현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

2 춘곤증과 인진운진

가. 춘곤증

흔히 춘곤증이란 봄이 되면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 현상을 일컫는다. 춘곤증은 “겨우내 추위로 움츠렸던 인체가 따스한 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과

중추신경에 미치는 자극의 변화로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라고 의학계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운전중 춘곤증으로 중대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나. 춘곤증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특징

춘곤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요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감기에 걸리면 며칠씩 계속 되기 때문에 도로를 운행하다가도 차를 세우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감기약 속에는 진정제,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들어 있어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주의집중이 안되거나 졸음이 오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사고와 직결되기가 쉽다.

따라서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을 앞두고 감기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하나, 꼭 감기약을 먹어야 할 때는 약사(의사 포함)에게 운전중임을 밝혀 운전 전에 방해되지 않는 약을 복용토록 하여야 하겠다.

다. 춘곤증과 안전운전

춘곤증의 증상은 피로하고, 나른하여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집중이 안되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사고의 원인이 되곤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과로운전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장거리 운전시에는 2시간 전



후마다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때는 차 밖으로 나와서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자동차의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동승자가 있다면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경쾌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껌을 씹는 것도 졸음을 쫓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창문을 꼭 닫고 운전하기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졸음을 쫓기 위해 필요하다.

3. 황사현상과 인진운진

가.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봄철이면 하늘을 온통 누렇게 뒤덮는 황사현상은 몽고의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의 타클라마칸사막, 알라산사막 등의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직경 0.002에서 0.005밀리미터 정도 의) 아주 미세한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에 의해 한반도에 하강하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는 보통 발원지에서 매년 3월에서 5월에 걸쳐 약 20회 가량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10%~30% 정도가 우리나라에 실려오게 된다.

나. 황사현상시 주의사항

황사의 주성분은 규소, 알루미늄,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산화물로 작은 입자상태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과 안질환을 가져 온다.

따라서 기관지염이나 천식환자는 황사현상이 있을 때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황사현상이 계속될 때는 창문을 꼭 닫고, 흡입공기조절 레버를 조정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 놓거나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도록 흡입공기조절 레버가 조정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흡먼지가 차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운전자의 눈과 코로 들어가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황사현상이 계속된 가운데 운전할 때는 차량의 워셔액을 충분히 뿌려서 시계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와이퍼의 브레이드와 유리면 사이에 달라붙은 흙먼지와외의 마찰로 인한 유리 손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해빙기 인진운진

가. 해빙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원인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 자동차, 사람 등이 추운 겨울보다 많은 교통량의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것들이 풀리면서 교통과 관련된 요소 등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온다.

첫째, 도로가 파손되거나 붕괴되는 곳이 많고

둘째, 날씨가 풀려 사람과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지고

셋째, 계절적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을 소홀히 하고

넷째, 기온이 상승하면서 운전자의 긴장이 풀리게 되는 등 이와 같은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해빙기 교통사고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나. 해빙기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 서 도로의 파손과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비포장도로, 강가에 접한 도로, 수도관이 파열됐던 도로, 산악도로 등에서 해빙으로 균열이나 낙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봄이 되면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가 재개되어 파헤쳐지는 곳이 많아 이런 곳을 통행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자동차 점검

계절이 바뀌면 자동차 점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

하여 필수적이다. 자동차도 얼었다 풀리면서 나사 등의 조임부분이 풀리거나 각종 오일 등이 부족하게 된다.

해빙기가 오면

첫째, 엔진오일, 기어오일 등 각종 윤활유와 냉각수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겨울은 여름보다 전력 소모가 3배나 더 소모되므로 배터리 성능을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겨울에는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의 마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넷째, 겨울 동안 차체에는 눈과 함께 흙먼지와 염화칼슘 등이 엔진룸이나 하체부분에 잔뜩 붙어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꼭 세차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물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으므로 스팀세차를 해서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정도를 뜻하는 사고건수당 사망자 수 비율인 치사율을 보면, 날씨가 맑은 날 3.74%, 흐린 날 4.99%, 비오는 날 5.37%로 대체로 낮은 데 비해, 안개 낀 날은 11.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 안개 낀 곳 운전시 등화장치의 작동

안개 낀 곳을 지날 때는 우선 자기 차의 존재를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전방의 물체를 조금이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개등이나 차폭등을 켜야 한다.

안개등이 없으면 전조등이라도 켜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 때는 절대로 전조등을 상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조등 불빛이 안개입자에 부딪치면서 난반사를 일으켜서 앞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시야장애를 주기 때문이다.

5. 안개길 인진운전

가. 안개와 교통사고

밤과 낮의 기온차이로 인해 안개가 자주 끼는 시기가 되었다. 안개 낀 날에 운전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비유될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사고건수당 사망자 수 비율인 치사율이 안개길 교통사고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안개길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안개 낀 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징

안개는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연쇄추돌사고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도로상에서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기상상태별로 분류해 보면, 안개 낀 날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라. 안개 낀 도로에서 안전운전 요령

안개가 짙게 낀 상태에서는 앞차의 미등이나 차선, 그 밖의 교통안전표시를 기준으로 삼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미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마구 달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급제동하거나 지나치게 서행하는 것도 뒤따르는 차에 의해 추돌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안개 낀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교통정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창문을 열고 운전함으로써 귀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라디오나 카세트는 틀지 말아야 한다.

안개 낀 상태에서는 늘 다니던 길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운행하다가 여지없이 교통사고에 말려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조심운전을 해야 하겠다. 🚗